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전일대비 1.50원 상승한 1,246.20원에 마감

11일 환율은 전일대비 1.50원 상승한 1,246.2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3.20원 하락한 1,241.50원에 개장했다. 하락 출발한 환율은 오전 장중 상승 전환했다. 달러인덱스가 반등하고 코스피도 상승 폭을 축소했다. 오후 장 초반 환율은 상승폭을 일부 축소하며 네고물량 영향 탓에 하락세로 전환했고 1,246.20원에 마감했다. 장중 변동 폭은 10.4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41.94원이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241.50	1250.00	1239.60	1246.20	1245.3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942.28	944.02	936.88	939.96

전일 유로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336.31	1343.06	1329.42	1340.04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71	-3.1	-8.2	-19.59
결제환율(수입)	-0.3	-2.06	-6.9	-17.25

*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로 당일자 청약시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

* 해당월 말일(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기준

*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rh-fx/index.do>)에서 확인가능

금일 전망

미 물가지표 관망 속 위험선호 회복에 ...1,240원 중심 등락 예상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1.15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246.20) 대비 3.05원 하락한 1,242.0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미국 물가지표 관망 속 위험선호 심리 회복 영향에 하락이 예상된다. 간밤 뉴욕증시는 인플레이 압력 둔화에 대한 낙관론 영향에 위험선호 심리가 회복되며 상승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에 따르면 12월 CPI는 전월대비 -0.

1%, 전년대비 6.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증시 상승에 국내증시도 어제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농후할 것으로 예상되며 금일도 외국인 자금 순매수가 지속되며 환율 하락에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중공업 수주 물량 및 설 연휴를 앞둔 수출업체의 네고물량 등 잠재적 수급부담 또한 금일 환율 하락 분위기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역내 저가매수 유입은 하단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236.60 ~ 1247.40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336.23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3.05원 ↓
	■ 美 다우지수 : 33973.01, +268.91p(+0.8%)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29.48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3908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